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0호 【루체 제25303호】 주제 105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 동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 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망, 미래사망이 뜨겁게 어려있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품결에도 뵈고 싶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한층도록 소중히 간직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소년단대표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 무한한 행복에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소년단대표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여기시며 세상에 부럽없는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리쳐올렸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을 진두지휘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소년단창립 70돐을 주체조선의 소년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학생소년들을 다사로운 한품에 안아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고마움에 넘쳐 소년단대표들은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크나큰 행복과 기쁨에 겨워 영광의 환호를 올리는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적소년

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모시고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가는 나 어린 애국자, 청년강국의 주인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소년단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리져올라 6월의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영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주체조선의 자랑이고 희망인 우리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강화발전되어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소년단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지역체를 결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어머니당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덕을 언제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앞에 펼칠 휘날리며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의 피줄기를 곳곳이 이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소년단창립 70돌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 성대히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밭아래 만발한 후대사랑의 대화원에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 사회주의 찬가가 시대의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소년단창립 70돌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7일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70돌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우리 소년단원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여기시며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머있는 세상에 불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에서 뜻깊은 8.8절을 긍지높이 노래하게 된 학생소년들의 기쁨으로 공연장소는 끝없이 설레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공경에도 뵈고 싶던 원수님을 우리러 복종같은 《안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위대한 아버지의 천만사랑으로 조선소년단창립 70돌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세 세대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창립 70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소년단 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동지와 청년동맹일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머니, 다심한 학부형이 되시어 끝없는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기쁨만을 드리고싶어 행복의 노래춤바다

를 펼쳐온 뜻깊은 공연장소에 원수님을 모시게 된 학생소년들의 걱정이 뜨겁게 끓어치는 가운데 공연은 서정 《경애하는 원수님께 영광드려요》로 시작되였다.

출연자들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며 제일로 사랑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과 정으로 주체조선의 소년대축전을 마련해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8.8절경축공연무대도 펼쳐주신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였다.

공연무대에는 가무 《대원수님 우리와 함께 춤을 추셨지요》, 합창 《장군님과 아이들》, 2중창과 합창 《소년단 배타이 매고계세요》, 민요제창 《내 나라는 아이들 세상이야》, 체육무용 《해님의 품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 기악과 노래 김일성상, 김정일상제관 작곡 《세상에 부럼없어라》, 옛말무용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들려주신 옛이야기 《호랑이들이 이긴 고슴도치》, 노래연주 《내 동생 문음에 대답했지요》, 《인제나 곁에 있어요》, 무용 《아동단원 금순이》 등의 종류들이 울렸다.

조선소년단의 70년 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추억깊은 노래들을 들으면서 관람자들은 소년단대회에 사랑의

노래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 주었다.

가야금과 장고 《제일 좋은 내 나라》, 민족기악과 노래 《행복의 꽃대문》, 무용 《해빛넘친 송마장에서》, 《스키야영 신나요》, 교예 《나를 좀 봐》는 어머니당이 마련해준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들에서 천만복을 누리가는 학생소년들의 명랑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당의 품속에서 지역체의 용마라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과학기술강국의 주인공, 혁명의 피를기름 곳곳이 이어나가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긍지가 차넘치는 복제창 《만리마라고 더 빨리》, 경음악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고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종장 《김정은원수님 발걸음따라 앞으로》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원수님을 우리러 또다시 영광의 환호가 터져오르며 장내는 격정으로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의 공연성취를 축하하시고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달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쳐준 위창한 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가 밝아오는 희망찬 시기에 조선소년단창립 70돌을 뜻깊게 경축하여 진행된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은 원수님의 명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의 혁명적기상을 파시하였다.



속하문도 보내 주시고 아이들속에 있으면 10년은 짧어진다고 하시며 해마다 설맞이모임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학생소년궁전의 밝은 불빛을 영원히 지켜주시기 위해 전선시찰의 멀고 험한 길을 견고걸으신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한없이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주체적소년운동의 빛나는 전성기를 열어주시고 이 땅위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은 300만 소년단원들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세 세대들의 눈부신 미래를 펼쳐주시는 원수님은 곧 우리 조국이라고 소리높이 구가하는 출연자들의

노래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 주었다.

가야금과 장고 《제일 좋은 내 나라》, 민족기악과 노래 《행복의 꽃대문》, 무용 《해빛넘친 송마장에서》, 《스키야영 신나요》, 교예 《나를 좀 봐》는 어머니당이 마련해준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들에서 천만복을 누리가는 학생소년들의 명랑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당의 품속에서 지역체의 용마라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과학기술강국의 주인공, 혁명의 피를기름 곳곳이 이어나가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의 긍지가 차넘치는 복제창 《만리마라고 더 빨리》, 경음악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고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종장 《김정은원수님 발걸음따라 앞으로》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원수님을 우리러 또다시 영광의 환호가 터져오르며 장내는 격정으로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생소년들의 공연성취를 축하하시고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달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쳐준 위창한 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가 밝아오는 희망찬 시기에 조선소년단창립 70돌을 뜻깊게 경축하여 진행된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은 원수님의 명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의 혁명적기상을 파시하였다.



#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실현에 이바지할 귀중한 재부 평양 체육기자재공장 준공식 진행

【평양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은 나라 천만군민이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문명강국의 필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시기에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실현에 이바지할 종합적인 체육기자재생산기지가 새로 일떠섰다.

청춘거리 체육촌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은 주체체육의 강화발전을 위해 심혈과 노력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체육강국으로 일떠세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체육중시사상과 정책적인 명도가 안아온 빛나는 창조물이다.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이 일떠설으로써 전문체육부문을 발전시키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체육기자재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지재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책적인 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건설된 평양체육기자재공장 준공식이 7일에 진행되었다.

최룡해동지, 로두철동지와 리봉주체육상, 편재부문 일군들, 건설에 참가한 군인전신자들, 과학자, 기술자들, 공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총정의 200일전투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평양체육기자재공장 준공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기자재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질풍을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여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이 널리 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명과 은정속에 발전하여온 공장이 온정을 배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미흡한 심정마디에 새겨안은 군인전신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당대한 공사와제를 제일이 성파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벼두산혁명강군의 단숨에의 기상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덕수평양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이 공장전대에 필요한 생산설비들을 제작설치하고 통합생산지휘체제를 확립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현대화를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공장을 찾으시어 군인전신자들이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구석구석 훑아볼데가 없이 정말 잘

건설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모일참가자들과 온 나라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당, 주체조선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그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생명선으로 붙여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와 당대히 경쟁할수 있는 체육기자재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심비, 원로,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과 첨단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군인전신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는 나날에 발포한 혁명적군인정신, 단숨에의 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문명건설에 이바지하는 만민대체의 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쳐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묘시

민주대연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묘시하였다.

동상을 하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들여다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전정하고 인사를 드려왔다.

전국 학원원아들의 체육경기 6일과 7일 동해의 항구도시 원산에서 진행되었다.

김승주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편재부문 일군들, 시인의 원아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경기에서는 전국의 학원원아들이 선발전 원아들이 풍구, 배구,

## 전국 학원원아들의 체육경기

예를, 100m달리기, 발목굽고달리기, 무릎짜음을 비롯한 10개 종목들에서 승부를 다투었다.

원부모의 정애도 비기지 못할 다심한 어머니사랑에 원아들은 지덕체의 흥미를 타고 다져로운 체육소조활동을 통하여 면마해온 체육기술과 적적하고 명랑한 행동동아들의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동태기슭에 최한하게 일떠선 원산초학원, 중동학원

## 원아들의 체육경기

승부를 겨루는 씨름경기는 더욱더 이채로웠다.

몸통한 모습으로 경기장에 나선 나이던 선수들이 살바를 들들끼 잡고 로미경기의 안간힘, 매지기 등의 다양한 씨름수법을 써가며 상대방을 보기 좋게 물리친 때마다 관람자들속에서 연방 환성이 터져나왔다.

체육관에 아이들의 웃음바다를 한껏 펼친 유쾌한 유희오락경기들로 경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 선수 이겨라》와 함성을

## 정일봉상 전국청소년래권도선수권대회 개막

정일봉상 전국청소년래권도선수권대회가 개막되었다.

평양시와 각 도에서 선발된 선수들로 꾸여진 종합팀들과 조선래권도위원회 래권도선수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는 태권도와 바둑종목경기가 태권도경기관에서 진행되게 된다.

개막식이 7일 청춘거리 풍구경기장에서 있었다.

편재부문 일군들, 선수들과 감독들, 학생소년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경호 조선래권도위원회의 위원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문명강국의 필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시기에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실현에 이바지할 종합적인 체육기자재생산기지가 새로 일떠섰다.

청춘거리 체육촌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은 주체체육의 강화발전을 위해 심혈과 노력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체육강국으로 일떠세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체육중시사상과 정책적인 명도가 안아온 빛나는 창조물이다.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이 일떠설으로써 전문체육부문을 발전시키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체육기자재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지재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책적인 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건설된 평양체육기자재공장 준공식이 7일에 진행되었다.

최룡해동지, 로두철동지와 리봉주체육상, 편재부문 일군들, 건설에 참가한 군인전신자들, 과학자, 기술자들, 공장 일군들,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 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2016 폐막

조선소년단원들 700을 맞으며 3일에 개막되었던 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2016이 폐막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체제의 혜택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기의 창조적재와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준 의미있는 계기로 되었다.

청년동맹일군들과 학생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 독자의 열지

### 친혈육의 따뜻한 정

저는 80살이 넘는 전쟁로병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수년전엔 편지없이 전쟁로병인 저를 친혈육의 정으로 따듯이 돌봐주셨던 홍남구역혁신소 강원회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심년세월이 흘렀지만 저를 위하여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나가고있습니다.

명절날과 생일날을 비롯하여 매일이 찾아와 저의 건강을 돌보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이 젖어올라옵니다.

인제인가 제가 몹시 앓고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약재를 비롯한 갖가지 영양식품들을 안고 달려와 머리맡에서 밤을 지새우던 그였습니니다.

그는 지분아니라 인민들의 후방가족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애로라도 있을새라 돌봐주고있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 도착

김차돌, 조전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들을 각자 단장으로

정동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총련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울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선수 이겨라》와 함성을

승부 겨루는 씨름경기는 더욱더 이채로웠다.

몸통한 모습으로 경기장에 나선 나이던 선수들이 살바를 들들끼 잡고 로미경기의 안간힘, 매지기 등의 다양한 씨름수법을 써가며 상대방을 보기 좋게 물리친 때마다 관람자들속에서 연방 환성이 터져나왔다.

체육관에 아이들의 웃음바다를 한껏 펼친 유쾌한 유희오락경기들로 경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 선수 이겨라》와 함성을

승부 겨루는 씨름경기는 더욱더 이채로웠다.

몸통한 모습으로 경기장에 나선 나이던 선수들이 살바를 들들끼 잡고 로미경기의 안간힘, 매지기 등의 다양한 씨름수법을 써가며 상대방을 보기 좋게 물리친 때마다 관람자들속에서 연방 환성이 터져나왔다.

체육관에 아이들의 웃음바다를 한껏 펼친 유쾌한 유희오락경기들로 경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 선수 이겨라》와 함성을

【조선중앙통신】



